

理 化 學 科 너

물의 3重點 (Triple point of water)

“얼음과 액체인 물과 수증기가 같이 存在하는 상태” (0.01°C , 蒸氣壓 4.58 Torr)로 *1) 熱力學的 溫度 눈금의 켈빈도를 定義하는 유일한 基本定點으로서 채용되며 273.16 K란 값이 주어져 있다. 또한 *2) 國際實用 溫度 눈금의 定義定點의 하나이다.

*1) 熱力學的 溫度 눈금 (Thermodynamic Scale of temperature): 一名 絕對溫度 (absolute temperature) 라고 하며, 物質의 特異性에 의존하지 않는 溫度 눈금을 定義한것 Lord Kelvin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(1848年) 켈빈 溫度라 불리우며, 數值뒤에 K를 붙여서 표시한다. 絕對零도를 0 K, 물의 3重點을 273.16 K로 定義한다 (1954年)

*2) 國際實用 溫度 눈금 (International practical temperature scale): 國際度量衡總會에서 승인된 實用溫度 눈금이며 기호는 $^{\circ}\text{C}$ 또는 $^{\circ}\text{C}$ (Int. 1948年). 溫度 눈금이 最終的으로 標準으로 할 熱力學的 絕對 눈금 (켈빈도, K)에 充分하게 일치시킨 것이라고 인정되어 있다. 우리 나라의 法定度量衡 및 여러 가지 눈금과 KS 基準도 이에 의하여 表示한다.

日本語 漢字 읽기 練習

이번 호에는 現在 日本 문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著名한 作家 司馬遼太郎의 「街道를 간다. 2 韓國紀行」(1978年 10. 20 朝日新聞社發行, 이 글은 週刊朝日에서 1971. 7. 16 부터 1972. 2. 4 까지 掲載된 것임)에서 발췌하였다.

요즈음 日本人들이 韓國에 대해 無知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忠武公같은 偉人에 대해서는 우리들 못지 않은 깊은 研究가 있었던 것 같다.

文章이 小説形式으로 되어 있어 다소 어려운 감이 들어 본문 하단에 충분한 註釋을 달았다.

◆ 李 舜 臣 しょうぐん
將 軍 ◆

^{*1}めいじ ²ご ³かいぐん ⁴そうせつ ⁵じしん ⁶ころ ⁷かいぐん ⁸とうよう
明治 後, 海軍을 創設して まだ 自信의 なかった 頃의 日本海軍は, 東洋

だ ⁹ゆいいつ ¹⁰うみ ¹¹めいしょう ¹²そんざい ¹³*2き
가 出した 唯一의 海의 名將として 李舜臣가 存在 することに 氣づき, これを

けんきゅう ¹⁴がんらい ¹⁵てきしょう ¹⁶おお ¹⁷そんけい ¹⁸*3めいじ
研究 し 元來가 敵將 であつた かれを 大いに 尊敬 した。 明治三十八

ねん ¹⁹がつ ²⁰*4 ²¹かんたい ²²きょくとう ²³*5 ²⁴たい ²⁵*6とうごう
年五月 バルチック 艦隊가 極東에 やってくる ことに 對して 東郷 艦隊は 釜山

さいほう ²⁶わん ²⁷か ²⁸ま ²⁹ぶ ³⁰*7 ³¹てっかんみ ³²しんごう
의 西方의 鎮海灣을 借りて 待ち伏せていた。 いよいよ 「敵艦見ゆ」의 信號に

よつて ³³しゅつどう ³⁴とうじ ³⁵すいらいしれい ³⁶しよさ
よつて 艦隊가 出動 するとき 當時 水雷司令 だつた 川田 功 といふ 少佐의

ぶんしょう ³⁷しょうぐん ³⁸れい ³⁹いの ⁴⁰ぶんしょう ⁴¹か
文章 によると 李舜臣 將軍의 靈に 祈つた とある。 其의 文章을 借りると

とうぜん ⁴²せかいだいいち ⁴³かいしょう ⁴⁴れんそう ⁴⁵*8
「……………當然, 世界 第一의 海將 たる 李舜臣을 連想 させずにはおこなか

つた. かれ의 じんかく ⁴⁶せんじゅつ ⁴⁷はつめい ⁴⁸とうぎよ ⁴⁹さい
つた. かれ의 人格, かれ의 戰術, かれ의 發明, かれ의 統御의 才, かれ의

はかりごと ⁵⁰いさみ ⁵¹ひとつ ⁵²*9しょうさん ⁵³あたい ⁵⁴めいじき
謀, かれ의 勇, 一として 賞讃に價せざるものはない」とある。 明治期

かいぐんしかん ⁵⁵まえ ⁵⁶てきしょう ⁵⁷*10 ⁵⁸いけい
의 日本의 海軍士官가 李舜臣 といふ 三百年前의 敵將 に對して いかに 畏敬의

ころ ^{*11} ^{かいぐんしかん} ^{でんとう}
 心 をもっていたかということがわかるであろう。その 海軍士官 にも この 傳統 があり、
 し ^{*12} ^{*13} ^{もと} ^{たいさ} ^し ^{どう} ^し
 私 の 知っている かぎりでも 元海軍大佐 正木生虎氏 同 山屋他人氏 なども そうである。

註

- * 1. 明治—明治維新을 말함. 1868年 將軍 德川慶喜가 政權을 明治天皇에게 내놓은 이후 많은 改革이 이루어짐.
- * 2. 氣づき—氣づく 깨닫다. 눈치채다
- * 3. 明治三十八年—1905年 露日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해
- * 4. バルチック艦隊—발틱함대.
 帝政러시아가 자랑하던 당시 세계 最大의 함대. 露日戰爭에 승리하기 위해 발트해→北海→大西洋→남아프리카→인도양→동지나해를 거쳐 극동에까지 왔으나 黃海에서 日本의 聯合艦隊에게 大敗하였음.
- * 5. やってくる—やる와 來^くる의 合成語, 航進해오다.
- * 6. 東郷—東郷平八郎, 露日戰爭 당시의 日本 聯合艦隊의 司令官.
 最近 거제도에 東郷의 戰績碑 復元 문제가 提起되어 말썽이 되었음.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쳐 부수고 日本에 凱施한 後 自身の 戰功을 트라팔거海戰에서 승리한 英國의 넬슨에 比較할 수 있으나 朝鮮의 李舜臣將軍에게는 발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述懷하였다 함.
- * 7. いよいよ—드디어, 마침내
- * 8. させずにはおかなかった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.
- * 9. 賞讚に 價せざるものはない—賞讚을 다할수 없다는 뜻임.
- * 10. いかにか—얼마나. 아마도. 어떻게
- * 11. もっていたかということがわかるであろう—가지고 있었던가하는것을 알 수 있다.
- * 12. ~いるかぎりでも—~하고있는 限에서도
- * 13. 元海軍大佐—前海軍大領

안전

철검

